

만원으로 미래를 키우다 YWCA 1922 장학금

100주년을 앞둔 YWCA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1년에 한번 1만원만 내면 Y-틴, 대학·청년Y 30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방법

1년에 1만원씩 5년간 후원

후원계좌

농협 301-1922-0000-31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장학금 지급

2017년부터 100주년까지 매년 30명
Y-틴, 대학·청년Y 임원활동 장학금

문의

전화 02-774-9707(장학위원회)

YWCA 한국YWCA연합회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권역협력부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한국 YWCA

2018년 4월호

April

Vol.549

특집 미투운동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2차 피해, 언론의 성찰이 필요하다

기획 지방선거와 YWCA

YWCA 탈핵·성평등 정책의제
목포YWCA Y-틴 '청소년 참정권운동'

현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 광배희 소장, 젊은지도자상 서지현 검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하정완의 레퀴엠 '먼지가 일어나리라'



소비자운동과 서울YWCA 정광모



'소비자운동의 대모' 정광모 선생

YWCA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비자상담 기구를 설치해 본격적인 소비자운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 국산애용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YWCA 소비자운동의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정광모 서울YWCA 증경회장이다.

1929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정광모 선생은 이화여자중·고등학교와 이화여대를 거쳐 1951년부터 평화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등에서 언론인으로 재직했다. 1960년대 초 일본 여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1964년 서울 YWCA 사회문제부에 소비자위원회를 만들었다. 1968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울 YWCA에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했다.

그해 여기자클럽 회장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일본 소비자운동을 보면서 한국 사회에도 소비자권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정광모 선생은 1970년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전문 민간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을 창립했다. 1979년 소비자연맹 회장이 되었고, 1980년 언론사를 퇴사하면서 소비자운동 전면에 나서게 된다.

1980년대 들어 한국 소비자운동은 큰 발전을 이뤘다. YWCA만 해도 소비자고발센터 개설 당시 몇 십 건에 불과했던 소비자불만 표시가 수 천 건으로 늘어났고, 1990년대는 13만 건이 접수돼 처리되었다. 그 가운데 '소비자운동의 대모' 정광모 선생이 있었다. 1996년 '소비자 보호의 날' 제정에도 기여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2004년 한국 소비자운동의 효시로 소비자권익을 향상하는데 공헌한 점이 높이 평가돼 YWCA가 주관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소비자운동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항상 빨간 옷만 입고 다녔다.

서울YWCA 이사(1967~1985)와 회장(1985~1989)을 지냈고, 한국소비자연맹 창립 이후 34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다. 2013년 별세했으며 소비자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첫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1972년 열린 서울YWCA 제1회 전국 소비자보호 세미나에서 정광모 선생이 발표하고 있다(왼쪽).



정광모 선생은 2004년 YWCA가 주관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을 수상했다(왼쪽).

2018. 4 한국YWCA



표지이야기

4월 6일(금) 국회 앞에서 열린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의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에 YWCA 회원 40명이 참석했다.

2018년 5월 주요일정

5월 16일

경기지역위원회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은학의 집 개관 18주년 기념예배

5월 17일

제2차 길위의 평화포럼 광주YWCA '오월포럼'

5월 24일

2018 여성평화걷기 심포지엄

5월 26일

2018 여성평화걷기

5월 29일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기관장협의회

제54권 제3호 통권 549호

2018년 4월 27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김민주 · 문미란 · 백수경 · 이경순

이은혜 · 이하나 · 정선경 · 조한나

편집 배정미 · 신미희 · 문윤희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10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04 **이달의 생각** 밥상과 생명 | 이종임

05 **말씀묵상** '하나님 선교'에 재헌신하다 | 박보경

특집 '미투운동과 성평등'

06 ① 미투운동 이후 성평등운동의 방향 | 김은경

08 ②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김애희

10 ③ 성평등없는 개헌안 국민주권도 민주주의도 없다 | 김은주

12 ④ 2차 피해, 언론의 성찰이 필요하다 | 황경희

현장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14 ① 대상 광배희 소장, 젊은 지도자상 서지현 검사 | 편집실

16 ② 수상소감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 | 광배희
'미투는 공감과 연대의 운동' | 서지현

기획 '지방선거와 YWCA 유권자운동'

18 ① YWCA 탈핵·성평등 정책의제 | 편집실

20 ② 목표YWCA Y-틴 '청소년 참정권운동' | 서민정

22 **국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보트에 올라보니 | 김수진

24 **이달의 현장①** 대구YWCA 95주년 기념식 | 손지수

26 **이달의 현장②** 62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미디어 속 성차별을 없애라 | 송소연

28 **이달의 현장③** 제1차 길위의 평화포럼 '회복적 평화'가 필요하다 | 백보람

30 **이달의 현장④** YWCA 첫 수도권 경제교육센터 열다 | 이지윤

32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①** 경주YWCA '행복한 어르신학교' | 봉혜영

34 **회원Y 활동현장을 찾아서②** 천안YWCA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 강규희

36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하정완의 레퀴엠 <먼지가 일어나리라> | 이은혜

38 **연합회 소식**

43 **회원YWCA 소식**

건강한 밥상과 생명

이종임

한국YWCA연합회 제2부회장 · 요리연구가



현대사회는 넘쳐날 정도로 먹거리가 풍족해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화로 인한 먹거리 환경의 오염은 생명의 위기를 낳았다. YWCA는 2008년부터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운동으로 생명사랑 소비자운동과 시민교육을 펼쳐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사고지역에서는 매일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 인근해역 수산물에서는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2013년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세습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요구' 등의 특별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한국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올해 2월 한국이 패소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 정부는 WTO에 상소를 제기했지만, 그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상소조차 패소할 경우 방사능으로 오염된 일본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YWCA를 비롯한 여성·환경단체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WTO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사능 수산물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34개 회원YWCA와 연합회는 30일간 1만 1,90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

GMO(유전자변형식품) 문제도 심각하다. 원래의 종 이 아닌 다른 종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얻은 유

전자조작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을 GMO라고 부른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식품 수입은 해마다 늘어 1천만톤이 넘었다.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45kg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거의 없다.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Non-GMO 미표기 식품을 GMO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에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YWCA 등 시민단체들은 GMO 완전 표시제 도입, GMO 없는 학교급식, GMO 표시 막는 고시개정을 촉구하며 국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하다. 이젠 먹거리도 환경을 떠나 생각할 수 없기에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밥상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이용하기, 동물복지 축산물 이용하기, GMO식품 완전표시제 촉구와 함께 GMO식품 사용하지 않기, 인스턴트 가공식품 줄이기, 로컬푸드 이용하기, 방사능 오염식품 먹지 않기, 당·지방·나트륨이 많은 식품 줄이기에 동참하자.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살맛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긴 여정에 10만 YWCA 회원 모두가 함께 응원해주길 기도한다. 

'하나님의 선교'에 재헌신하다

박보경

장로회신학대 교수 · 목사



사도행전 20장 22~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내게 증언 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를 지나 서바나로 가서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서바나로 가는 꿈을 접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길,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가 커져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배를 타기 전 에베소 항구에서 다시 자신의 소명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중요한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작별인사를 나누면서, 다시는 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바울은 고별설교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남김없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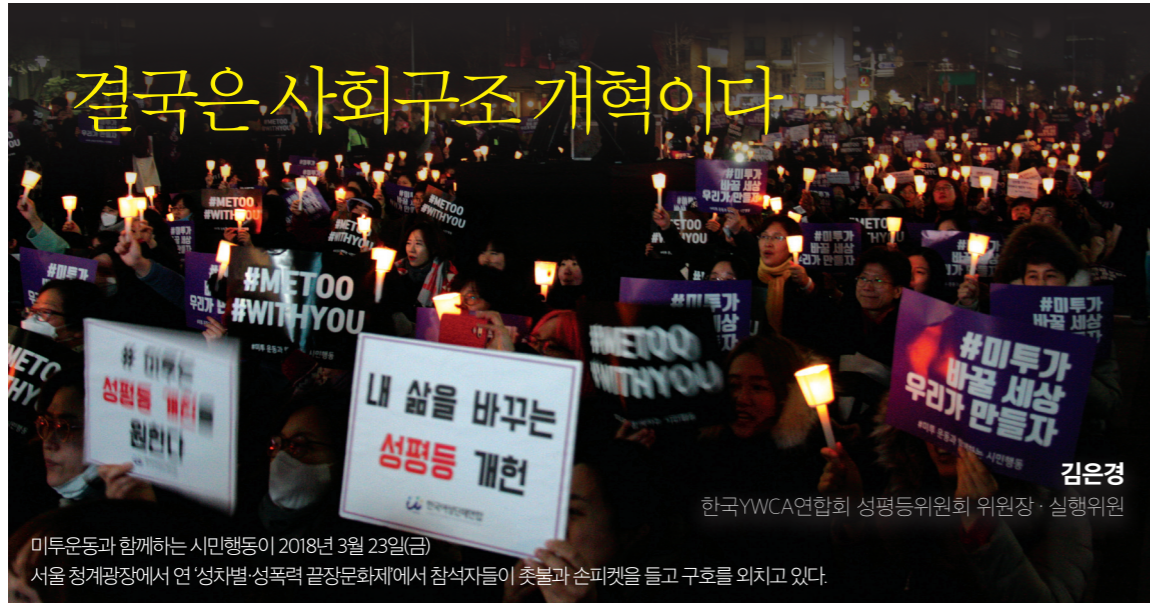
저도 에베소 항구의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바울의 다메섹 경험처럼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믿는 사건들을 겪으며 여성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애쓴 지 30년이 넘는 지난해 전혀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2016년 11월 25일, 20여년을 함께한 남편 장요한 목사가 간암말기 선교를 받았습니. 그의 나이 불과 53세, 의사는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 비전과 신앙은 이때를 전후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해 2월 12일, 남편은 하나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육신의 죽음은 인간이 부인하지 못하는 가장 처절한 현실임을 느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당사자가 겪는 두려움과 절망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신학자, 목사로서 죽음에 대해 말했지만 인간의 깊은 절망의 본질인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재헌신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이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두 달만이던 2017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목회하던 작은 이민교회에서 부활절 설교 부탁이 왔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내가 성도들을 향해 부활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며 진정한 부활신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경험을 통한 깨어짐에서 다시 회복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이 저를 하나님의 선교로 재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다시금 헌신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3월 23일(금) 서울 청계광장에서 연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하고 큰 하나의 목소리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의 청계광장은 4월을 눈앞에 두고도 여전히 겨울이었다. 얼핏 햇살이 비칠 때면 잠시 봄인가 싶다가도 다시 겨울로 되돌아간다. 이 차가운 느낌은 단지 바람 때문이기보다는 전날부터 이어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흐느낌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미투시민행동)’이 기획한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와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현장은 그렇게 겨울과 봄이 교차했다. ‘미투시민행동’은 3월 15일 YWCA를 비롯해 340여개 여성·시민단체가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 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해 출범했다.

여성을 둘러싼 모든 일상이 차별과 부정으로 물들어 왔음을 증언하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이어말하기’는 #미투의 본질이 남녀의 불균형한 권력관계에 따른 민주주의의 위기임을 강변하며,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무권력이 초래한 강요된 침묵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투에 대한 응답은 보편주의로 가장한 남성중심의 가치체계가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기존의 성차별적인 법, 제도와 사회운영 원칙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잉 대표된 남성권력이 낳은 불평등 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를 되돌리려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저마다 위치에서 외쳐대던 기존의 운동방식에서 하나의 목소리, 강하고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연대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투시민행동’이 그러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YWCA를 비롯한 9개 여성단체의 연대조직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그렇다.

곳곳에서 좌초되는 혁신적인 제안

국회는 물론이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시도되는 개혁과제들이 남성과잉의 권력구조 안에서 공중분해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기에 정파를 넘어, 진부한 용어논쟁을 뒤로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유권자, 납세자,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들’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주권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떠맡고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움직임의 시작은 면밀한 사태파악이다. 알아야 한다.

제도권 내부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월 8일 정부는 여성가족부 중심의 협의체인 ‘법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12개 관계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 실무협의와 현장 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의 논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직장에서의 신고, 감독 및 권리구제 강화, 문화예술계 특별조사·신고 및 대응체계 강화,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적극적 수사 대응 및 가해자 엄중 처벌, 추진체계 강화 등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 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어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을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종합하고, 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단지 계획일 뿐 사회구조 개혁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모두를 위한 민주사회로의 여정을 앞당기기 위한 혁신적인 제안들이 곳곳에서 좌초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고 소리치고 바꾸자

국회와 청와대의 개헌과정이 그 증거다. 2017년 1월 국민참여 개헌이라는 큰 그림 아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한 국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1년 여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 다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시간을 벌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는 여성을 둘러싼 모든 일상이 차별과 부정으로 물들어 있음을 증언했다.

구성하고 한 달여 동안의 논의 끝에 정부 개헌안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에는 여성계가 요구한 최소한의 주장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는 평가에도 그 민주주의 속에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러설 수 없기에 범여성계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남녀동수개헌을 위한 입법청원, 성평등개헌을 위한 입법청원, 여성차별철폐자문회의 신설을 위한 입법청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회의장을 만났고, 각 당 대표들을 만났다. 동수개헌을 위한 국회 앞 300인 선언도, 성차별해소를 위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보장을 위한 10차 개헌 촉구 100만 유권자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계획하던 목표는 하나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자. 성희롱·성폭력은 범죄이며, 임금차별 또한 불법임을 외쳐대자. 그래서 2018년 모든 차별적 상황을 끝내버리자. 차별의 가시화는 우리를 분노하게 했고 공감과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 한국YWCA는 96년을 그래왔듯 지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말하고 소리치고 바꾸어’ 왔다. 2018년 외침은 YWCA를 넘어 우리 사회 절반의 여성들을 향하고 있다. 10만이 100만으로, 다시 1,000만 시민으로 그리고 2,143만 7,021명의 여성유권자 모두에게 전달될 때까지 소리 높여 외쳐야 한다. 차별의 철폐는 결국 차별 받는 자의 몫임을 YWCA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개혁실천연대는 3월 22일 백주년기념교회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성폭력 사건으로 꼽히는 오더목사 사례를 다룬 보고서 '아수의 송곳니를 뽑다' 출간 간담회를 열었다.

'미투운동'이 종교계로 확산되면서 교계의 응답도 시작되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반대하며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피해자를 위한 기도회도 열렸다. 기장여성연대는 '교회는 미투와 위드유 운동, 어떻게 응답할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믿는페미·감리교신학대학교총여학생회는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 가라사대 #미투'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교회내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미투운동'에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

교회내 성폭력 생존자 말하기 대회

"나는 말해왔고, 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말할 겁니다." 무대에 오른 여성이 그 날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가끔 울음이 터지기도 했지만, 이야기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 '듣기' 참가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조언이나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숨소리조차 방해되지 않도록, 숨죽인 채 그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뿐이었다. 주저되는 시도였다. 공론의 장으로 나올 피해자가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다. 종교의 장에서는 흔치 않은 시도였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당사자가 대중 앞에 나서는 일은 여전히 두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하기' 참가자들에게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노라 약속했다. '듣기' 참가자에 대한 확인도 중요한 사항이었다. 사전신청을 받았고, 중요사항을

일일이 확인하는 선별과정을 거쳤다. 일체의 녹음과 촬영도 허용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은 염려와 달리 그날의 일을 거침없이 고백했다. 그리고 여전히 '경건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를 향해 분노했다.

기독교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장벽

'미투' 운동이 만들어낸 변화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성폭력은 더 이상 은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피해 당사자는 들어주는 이들이 있다면 어디든 거리낌 없이 피해경험을 말하기 시작했다. 종교계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했던 추행과 폭행을 SNS를 통해 고발하거나,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다.

교회 안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은 전혀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몇몇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던 '권사님', '집사님'에 대한 기억이 심심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치 않게 등장하곤 한다. 목사님이 한동안 설교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은둔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지난 5년간 집계된 성폭력 범죄자의 직업군 중 종교인이 가장 많았다는 경찰청 자료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다. '믿음'과 '사랑'만이 존재할 것 같은 신앙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행실 나쁜 누군가의 일탈', '돌이 있는 공간으로 찾아간 잘못' 등 흔히 성폭력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한다. 하지만 기실, 세상의 모든 폭력행위가 그렇듯 성폭력은 불평등한 위계구조에서 발생한다. 어떤 형태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위계적 하위존재에게 강제한다는 말이다. 우리들의 교회 현장은 어떠한가? 많은 이들에게 교회는 차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은 수직적이고, 소수 엘리트에 의한 정보독점과 의사결정은 일상적이다.

로즈마리 류터는 '기독교여성에게 가장 어려운 장벽은 분노와 자신감을 좌악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종은 미덕이나, 주장은 불경하다. 이 때문에 대개의 경우 교회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반면 가해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을 통해 당당히 범행을 부인하거나, 합의하에 가진 관계라는 식의 변명을 행한다. '모함'이라는 말을 통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피해자에 비해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자신의 압도적 영향력을 십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피해자의 말은 묻히고, 가해자는 변함없는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낮은 성평등 감수성과 교회 성폭력

성폭력 뿐 아니라, 사실 성에 관한 한 한국교회의 민낯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장로가 될 수 없음을 신앙의 전통인양 으스대는 교단들이 거대한 교세를 자랑한다. 안수가 허용된 교단에



서는 청빙을 하지 않으므로 여성교역자의 설자리는 없다. 결정과 집행은 앞에 선 남성의 전유물이 되는 동안, 여성들의 자리는 주방과 안내석으로 굳어졌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교회의 성폭력은 낮은 성평등 감수성에서 자란 암세포와 같다. 죄의식 없이 범죄가 저질러지고, 공동체는 이를 범죄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었다.

이제라도 한국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 피해자는 교회 공동체가 앓아갔던 권리를 스스로 찾아 말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불행한 기억에 갇힌 채 암울한 삶을 사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해졌던 범죄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성폭력 '생존자'들의 '말하기'는 그동안 스스로 진화해왔던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용기에 화답할 책임이 있다. 아니 그보다 당사자의 입이 되어주는 커녕, 그 입을 막는데 급급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신앙인의 연대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우는 이와 함께 올라'는 성서의 명령에 대한 마중물이다.



YWCA를 포함한 12개 전국단위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 4월 6일 국회 앞에서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 촉구'를 위한 300인 선언을 하고 있다.

고장난 국회 개헌시계, 반쪽짜리 정부안

1987년 이후 30년만에 제10차 헌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2월 29일과 2017년 2월 2일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지만, 1년여 동안 국회의 개헌 시계는 당리당략으로 고장난 시계마냥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정부 개헌안 발의를 통해 국회를 압박해서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진 국회의 개헌시계를 다시 움직여 보겠다는 대통령 의도가 읽혀진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차적인 반응은 긍정적이다. 물론 4년 중임제 중심의 권력구조와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를 제외한 특히 기본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국YWCA연합회를 포함한 많은 여성단체들은 정부 개헌안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10일 헌법개정여성연대와 정춘숙 국회 개헌특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한 '성평등과 헌법' 토론회를 통해 여성계는 성별에 따른 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두 가지의 헌법적 규범, 즉 적극적 조치와 남녀동수(parity) 대표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개헌안 제11조 제2항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은 적극적 조치만을 수용하고 남녀동수 대표성에 대한 요구는 삭제하여 반쪽짜리 개헌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남녀동수'여야 하는가

성차별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등대우와 동등대우가 필요하다.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받는 대상을 더 우대하고 더 배려하는, 즉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그것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다. 반면 동등대우는 차이가 차별로 전환되지 않도록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동수(parity)다. 동수는 인류를 구성하고, 국민을 구성하고, 시민을 구성하고, 개인을 구성하는 절반의 여성들에게 정치공동체의 대표자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의미한다. 적극적 조치와 남녀동수 대표성은 상호 대체나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방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둘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적극적 조치를 통한 차별의 시정이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차별의 시정과정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즉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 개헌안 제11조 제2항에 의거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주체로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차별시정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차별해소를 하는 주체가 아닌 차별해소의 시혜를 받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녀동수 대표성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촛불시민들이 외친 진정한 국민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주권을 가진 남녀국민들이 동등하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계가 요구한 선출직 및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의 권리는 여성문제를 넘어선 대표성의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남녀동수는 이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남녀동수대표성이 삭제된 정부의 개헌안은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개헌

헌법은 전통으로서 물려줘야 할 화석화된 유산이 아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갱신되

어야 하는 사회계약이다.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헌법은 한 사람의 '미투' 증언이 사회 대변혁을 요구하는 '미투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응답해야 한다.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규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남녀동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권리장전이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편적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헌법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종교적 교리해석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는 규범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둘러싼 논쟁은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새롭게 쓰일 헌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성별, 종교, 인종, 문화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진정한 자유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을 담은 권리장전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개헌시계는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동되었다. 국회 개헌합의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쉽지 않은 국면이다. 오늘도 국회 개헌합의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만 높다.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 이후 최대 범여성연대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여성행동'을 결성해 '10차 헌법 개정과 남녀동수 개헌을 위한 3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정당 항의방문, 당 대표와 원내 대표 면담,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추진했다. 여성계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은 30년만에 맞은 개헌이 남녀동수와 성평등 실현을 요구하는 미투운동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아야 할 것이다.



서울YWCA가 3월 20일 개최한 시민토론회에서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황경희

서울YWCA 여성참여팀 간사

무분별한 보도로 2차 피해 언론의 성찰이 필요하다

미투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져나가며, 언론에서도 연일 미투운동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현재 성폭력 피해 고발 등 '미투'와 관련한 보도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서울YWCA는 3월 20일(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토론회 '미투운동과 언론보도'를 열어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시민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4월 1일(일)부터 7일(토)까지 미투운동 관련 보도실태 모니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2018년 1월 1일(월)부터 3월 31일(토)까지 보도 중 1,500개 기사를 표집하여 분석했다.

이번 미투운동 보도실태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문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된다.

① 불필요한 피해자의 신상 노출 ②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보도 ③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 묘사 ④ 성폭력을 사소화하는 표현 ⑤ 선정성을 부각한 낚시성 제목 ⑥ 성폭력 상황을 필요 이상 상세하게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한 보도다.

피해자 신상 노출로 2차 피해 조장

중앙일보가 2월 7일 보도한 『변호사, 신문칼럼에 “고교시절 목사가 추행” 미투』기사에서는 성추행 상황을 고발한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외에도 나이, 사는 곳, 사무실이 위치한 행정동과 사무실명, 변호사시험 합격기수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 피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부일보에서 2월 24일 보도한 『조재현 성추행 폭로 ‘미투운동’ 동참 최윤희는 누구? ‘매직키드 마수리’ 출신 배우』는 제목부터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위한 기사로 피해자의 실명, 직업, 작품 활동 내용과 배우자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는 등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했다.

이처럼 기사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폭로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알려질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언론은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할 의무가 있다.

가해자 편에 선 보도

스카이데일리가 3월 17일 보도한 『활동중단 조재현, 평생 놀고도 먹고 살 670억 재력』 기사에서는 “본인만의 연기세계를 구축해 나가며 점차 대중적 인지도를 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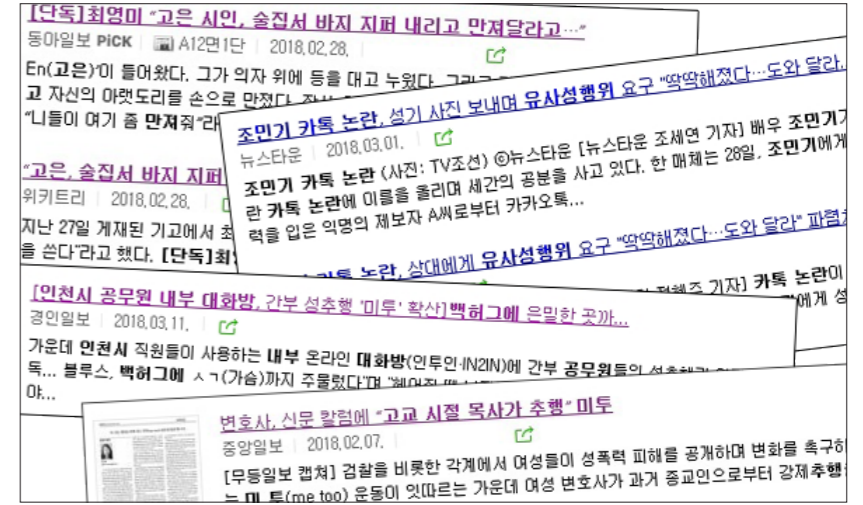
아나갔다. 이후 ‘연기와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톱스타 반열에 등극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여파로 성추행 및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그동안 힘겹게 쌓아 올린 대중적 인지도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며 가해자 입장에서만 사건을 전달해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2월 27일 데일리안의 『‘미투’의 가해자 아닌 피해자 양산 ‘우려’』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에서 미투운동을 진단하며 가해자들이 겪게 될 피해가 우려된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3월 23일 아시아경제의 『‘익명’의 미투 폭로, 피해자 보호? 무고한 가해자 양산?』에서는 미투운동의 영향력과 익명성에 기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투운동을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묘사했다.

가해자의 입장과 해명에만 집중하는 보도는 가해자에 대한 동정여론을 이끌고, 미투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더해져 미투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해자를 움츠러들도록 하고, 미투운동의 의미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조민기 카톡 논란, 상대에게 유사성행위 요구 “딱딱해졌다… 도와달라” 파렴치』(에너지경제 3월 1일), 『[단독] 최영미 “고은 시인, 술집서 바지 지퍼 내리고 만져달라고…”』(동아일보 2월 28일), 『[인천시 공무원 내부 대화방, 간부 성추행 ‘미투’ 확산] 백허그에 은밀한 곳까지… “나도 당했다”』(경인일보 3월 11일)



언론이 '미투'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이같은 기사들은 제목부터 선정적인 내용을 연상시키며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몇몇 기사는 피해자가 서술한 성폭행 장면을 어떤 가림 장치도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 성폭행 사건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통해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보도행태다.

언론의 성찰과 변화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미투운동과 언론보도’ 시민토론회에서 언론이 가부장적 시선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극복하는데 서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성평등 관점에서 성폭력 피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폭력구조를 밝혀내는 일을 언론이 해달라는 요청이다.

미투운동은 부도덕한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일상적인 성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해온 사회구조에 대한 고발이다. 언론의 미투운동 보도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언론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젠더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 미투운동이 개인들의 폭로전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에 대한 제대로 된 언론의 의제설정 역할이다.



2018년 한국여성지도자상 대상은 45년간 여성들의 가정문제 법률구조와 가족법 개정운동에 앞장서온 광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 젊은지도자상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여 미투운동(MeToo)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YWCA와 한국씨티은행은 4월 17일(화)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제16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여성권리 확립을 위해 애쓴 박에스터 YWCA 고문총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제정된 한국여성지도자상은 YWCA와 한국씨티은행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으며 창조와 봉사의 정신을 발휘해 여성지도력 향상에 공헌한 여성지도자에게 대상, 미래 여성의 역할을 열어나가는 만 50세 이하 여성에게 젊은지도자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로 16회를 맞으며 그동안 36명의 여성지도자를 발굴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전국 52개 지역YWCA 회장단을 비롯한 한국YWCA연합회 임원, 실행위원, 활동가와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수상자는 미투운동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성평등 과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시상 축하공연에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이 출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청중들의 요청으로 두 번의 앵콜 공연이 이어졌으며 인도자의 팔을 잡고 무대를 내려가는 동안에도 박수 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여성 법률구조와 가족법개정 앞장선 광배희 소장

대상을 수상한 광배희 소장은 한국 최초의 가정문제 전문 상담기관이자 민간 법률구조 법인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73년부터 활동을 시작, 2000년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해 현재까지 법률구조 활동을 통한 여성 권익 향상에 헌신하고 있다.

광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고 있던 사회적 약자, 특히 가정문제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45년간 94만여 건의 법률상담과 화해조정을 지원해 인권을 회복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문제 법률상담에서 나타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자 가족법 개정 운동에 적극 앞장



시상식에는 한국YWCA와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섰다. 특히 혼인의 자유와 성평등 정신을 침해해온 동성동분금혼 규정을 폐지하고자 피해신고센터 개설, 변호인단 결성 등으로 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냈다.

가족법의 대표적인 성차별의 핵심조항인 호주제 폐지에도 기여했다. 2000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국회에 청원을 내고 국민적 여론 형성 등으로 여성계가 50년간 벌여온 호주제 폐지를 2005년 이끌어냈다. 2001년부터는 양육비 이행 확보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10년 만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뤄냈다.

'미투운동' 촉발 서지현 검사, 목포YWCA의 '딸'

이날 건강과 사건문제로 시상식에 오지 못한 서지현 검사를 대신해 서 검사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문무 조순열 대표변호사와 김예원 변호사가 대리수상을 했다. 조 변호사는 "서 검사가 검사직을 걸고, 나아가 목숨을 걸겠다는 큰 마음으로 세상에 드러내놓기 시작했을 때는 과연 어느 누가 서 검사를 지켜줄까 걱정했다"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성원해줘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 검사가 피해자로서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검사로서 여성으로서 여성인권 향상에 앞장서는 리더가 되려는 다짐을 하고 있으니 끝까지 관심을 보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음악적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들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축하공연.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검찰내 성추행, 성폭력 실태를 피해자의 목소리로 고발해 '미투운동'에 불씨를 지피며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은 권력과 결탁한 성폭력 앞에 침묵을 강요받거나 숨죽여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계, 예술문화계, 연예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운동으로 확산돼 여성인권 향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특히 정의와 공정함을 구현해야 할 최고 사법조직인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세상에 드러내 성범죄가 남성 개인의 일탈이 아닌 가부장적 권력구조와 성차별적 위계 문화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내부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서 검사의 결단은 남성 위주의 한국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며 만들어진 성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일궈나가는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 심사과정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이날 시상식장에서는 서지현 검사의 어머니가 목포 YWCA 이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서 전국 YWCA 회장단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반가움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또한 젊은지도자상 상금 2천만원 소식을 듣게 된 서 검사는 조순열 변호사를 통해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고 나아갈 길을 가늠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이태영 선생님께서 이런 상담소를 보셨다면 이제 YWCA와 비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해 보면서 시민단체의 모범이 되는 YWCA에 경의를 표합니다.

YWCA와 닮은 가정법률사무소

학교 졸업 이후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선배, 어른들을 보고 배우며 일한 시간들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 어느새 제가 그 선배들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를 향해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상담소에서 고통 받고 번민하는 소외계층 이웃들의 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 소리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 가족법개정 운동은 물론이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해왔고, 대사회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상담소는 여성인권, 성평등, 가족구성원의 복리 등 사회적 약자의 법적인 권리를 위해 언제나 적극적으로 함께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제 철폐나 호주제 폐지와 같은 것은 곧 상담소의 목적사업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연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이 연대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여전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이들이 있고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상담소를 지킬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성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가정, 사회에 완전한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상담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희호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효재, 박영숙, 윤정옥 등 역대 수상자 선배님들을 이어 한국여성지도자상 수상자가 되었다니 뜻 깊고 감사합니다. YWCA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조혼, 공창제도 폐지와 축첩제 반대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생활조건 향상, 근로여성의 직업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민주적,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할 능력을 가진 여성지도력을 배출해내는 중요한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탈핵, 북한어린이 돕기 운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956년 창설되어 우리 사회 소외계층, 번민하는 이웃들을 위한 법률복지 사업과 법의 생활화, 가족법상 부부평등과 양성평등 그리고 가족구성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가족법개정 운동 및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등에 앞장서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법률복지사업과 법의 생활화, 가족법개정 운동 등에 앞장서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도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수상 소식을 들으면서 상담소 창설자이자 스승인 이태영 선생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 “YWCA를 좀 본받아라”가 떠올랐습니다. 모범적으로 세련되게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을 지나온 길을 돌아보

미투는 공감과 연대의 운동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여 감사를 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일상의 차 한 잔에 소소한 행복을 찾고, 가끔 남편과 투닥대기도 하고, 아이 간식과 공부를 걱정하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로 살다가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어 세상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강자들의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징계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음해하고 괴롭히면서, 피해자에게 치욕과 공포를 안겨주어 입을 닫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부패와 인사 관행을 더 이상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십수 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으면서 힘겹게 쌓아온 제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범죄라고,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검찰은 정의의 수호 기관으로 바로서야 한다고...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겼습니다


남성 전체를 적으로 만들거나 검찰 전체를 공격하려던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 건전한 상식을 가진 남성들이 힘겹지만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검찰에는 대다수의 선량하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밤새워 성실히 일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투(MeToo)운동은 공격적 폭로가 아닌 공감과 연대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을 공격하고 폭로하

거나 개인적 한풀이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바로서야 할 검찰을, 함께 바뀌어나갈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수십 년을 보아온 그대로, 마치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참고 또 참던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가해자가, 조직이, 사회가 부인과 비난, 은폐와 보복을 시작합니다. 예상하고 각오했던 일이지만, 힘겹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에는 없던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혼자 아님을 알게 해주는 수많은 공감의 목소리 속에서, 검찰이 바로서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하는 연대의 응원 속에서, 어쩌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되고 개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힘겹게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공감해주는 목소리에 큰 위로와 용기를 받아, 힘을 내어서 있습니다. 저의 작은 소망에서 시작한 일로 이렇게 큰 상을 주심에 다시 한 번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YWCA 회원들이 2017년 4월 2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권자운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선거마다 정책의제를 제안해 YWCA 가치가 정치제도와 국민 생활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한국YWCA는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펼친다. 특히 지역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2018~2019년 YWCA 중점운동인 탈핵 에너지전환, 성평등 분야 정책을 지방선거 의제로 개발해 전국 52개 회원YWCA 중심으로 정책제안, 투표참여 촉구, 후보자·유권자 평가, 유권자 선언 등을 전개한다. YWCA 지방선거 정책의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핵 에너지전환

① 지역에너지전환과 자립정책 수립

<지역에너지전환 계획이 없거나 탈핵에너지 전환도시가 아닌 경우>

- 핵발전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한 지역 에너지자립 계획 선언

<지역에너지전환 계획이 있거나 탈핵에너지 전환도시인 경우>

-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전력자립률 목표 설정
- 지역에너지 조례 제정
- 추진체계 구축 : 예산 배정, 에너지 전담부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 지역에너지공사 설립과 시민(도민)지분 참여 법제화 추진
-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추진과 재생에너지사업 규제 완화
- 지방자치단체 주도 농촌 태양광(풍력단지) 시범단지 추진 등

② 에너지도시, 에너지자립 마을, 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저소비형 도시 재정비 : 과다소비 건축 규제, 저소비형 공간
- 에너지 복지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용 지원 등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과 단열개선사업 지원 : 에너지 저효율 건설방지, 교육청 연계 초중고 학교 건물 단열화, 조명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절약, 효율개선, 재생에너지 생산 녹색일자리 창출
- 에너지자립 마을 만들기 : 시범사업 진행
- 주민참여형 태양광협동조합 확대 : 철도부지, 전철역사, 공공건물, 학교지붕 등 적극 활용. 미니태양광 지원, 다양한 용량의 태양광 에너지원 활용

③ 에너지전환 교육 확대

- 에너지시민 교육
- 지역별 환경 에너지센터 운영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영광 등 핵발전소 밀집지역 : 원전재난 대비 교육과 방사능 대피훈련 실시

※ 교육감 후보 요구 사항

- 학교 에너지전환 교육 의무화와 재생에너지 체험교육센터 시범학교 운영

- 100% 재생에너지 시범학교 운영
- 에너지 전환학교 운영 : 학교 지붕 위 태양광 설치, 학교 건축물 단열과 에너지 비용 절감
- 학교별 방사능방재 교육과 원전 주변 지역 훈련 의무화

④ 방사능 없는 공공급식 실시

- 방사능안전급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동 자체 안전관리기준 제정
- 방사능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 방사능 검출 빈도 높은 식품에 대한 취약계층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
- 어린이집·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검사 강화
-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학교 밖 급식시설에 대한 방사능 검사
- 공공급식 안전감시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학교장, 교사, 영양사, 조리사, 학생, 학부모 대상 방사능 교육

성평등

① 지방정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체계 마련

- 지역 성평등 정책비전 수립과 행동계획 발표 촉구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중 '지역 성평등지수' 통한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수준 공표와 연도별 상승 방안 마련
- 지방정부 성평등 전담기구 설치와 실질적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를 추진할 젠더담당관 채용
- 지방자치단체 의원 대상 성평등·성인지 교육 전면 실시
- 공직사회 성차별·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조직 성차별 실태 전수조사와 해결
- 광역자치단체 산하 수직적 성평등 조정기구 마련

② 여성일자리 정책과 돌봄의 사회화

- 여성 집중 직종의 임금현실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여성 전문직업훈련, 취업지원 기관 확대와 지원
 -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상담 지원시설로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법적 지위 확보
 - 여성일자리 정책에 성인지 예산 위한 국비지원 체계 마련
 - 4차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여성직종 개발과 훈련을 위한 정책 지원
- 양질의 지역 여성 특화 일자리 대책 마련 : 저임금 여성일자리 구조적 개선
 -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일자리 성차별 개선
 -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
 -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과 여성 전문인력 양성

- 공공보육 확대 : 지방자치단체 운영 공공어린이집 30% 목표
- 일하는 부모를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 지원 체계 마련
 - 가사, 양육 등 돌봄서비스 확대 : 학교 내 방과후 교사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 확대,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와 보건의료인력(가사간병 도우미, 간병인 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돌봄서비스 관리감독 강화와 시설장, 종사자, 이용자 교육 추진

③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여성폭력방지에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확대와 계획 수립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책과 조례 제정
 - 여성과 아동 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운영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평가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지원 확대 : 자립지원비 지원, 동반아동수당 지원
 -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예산 확보
 -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인건비 예산확보와 지급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민관위원회 설치와 운영 활성화
 -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관계망 형성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가정폭력·성폭력·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여성 및 아동이 참여하는 지역 여성·아동 폭력 안전지표 작성
 - 여성·아동 폭력 안전지도 예산 확충과 도시계획 반영
-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강화
 - 예방교육 예산 확대 : 학교폭력,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젠더감수성교육, 평화감수성교육, 양성평등교육
 - 각급 학교, 지역내 기업, 단체, 공공기관, 주민대상 교육 확대
 - 시도 교육감, 학급학교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화 시행
-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변화와 재난대응 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재난·재해 안전매뉴얼과 설명서 제작
 - 여성과 아동,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 성인지 관점의 재난 안전교육 상시화

④ 여성 대표성 보장 : 의사결정구조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각종 위원회 위원 남녀 동수 조례화
- 5급 이상 여성공무원 30% 승진 목표제 실시 : 여성공무원임용 목표제 관리 강화
- 지역 내 공공·민간기업 관리직 여성비율 30% 목표제 실시



Y-틴이 청소년인권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들고 있다.

18세 선거권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과제다. 청소년들은 '우리도 국민이다'를 외치며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거리행진, 다양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10대 청소년 3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눈물어린 삭발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YWCA 청소년회원으로 구성된 Y-틴은 2017년부터 청소년 인권을 증점운동 주제로 정하고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목포YWCA Y-틴의 목소리를 실었다.

서민정

목포YWCA Y-틴(목상고등학교 2학년)

나이가 많아만 판단을 잘 하나요?

2017년 많은 청소년들이 광화문에 모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빛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어른들은 '청소년은 아직 어리다'며 반짝이는 우리 불빛을 꺼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어른이라고 올바른 판단만 하나요?"

어른들은 말합니다. '어린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우리를 그저 나이가 어린,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학생으로만 생각합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잊지 못할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던 해입니다. 어른들의 신념과 판단으로 투표하여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도 어리고 심지어 박근혜, 최순실마저 모두 어른입니

다. 어리다고, 경험이 없어 뭘 모른다고 우리를 무시했던 어른들은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이런 선택과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우리들은 부정부패한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습니다. 어른들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뿐인가요? 중·고등학생들이 소신 있는 자유발언에 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은 어째서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다시 한 번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어른, 다른 게 뭐죠?"

제19대 대선 투표일인 2017년 5월 9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모의대선'이 진행되었습니다. 투표권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5만 1,715명이 참여했고, 목포에도 모의 투표소가 설치돼 어른들과 똑같이 청소년들도 대선 투표를 할 수 있었습

니다. 투표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신념과 판단으로 뽑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와 어른들의 생각에서 다를 게 무엇인가요?

목포YWCA에서 청소년 인권교육을 하며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 인권 중에서도 참정권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해 참정권에 대한 Y-틴의 생각을 직접 발표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는 장벽일 뿐 생각과 사고는 어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왜 자꾸 어른들은 우리에게 아직 투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어리다고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18세 참정권 보장, 왜 안되는 거죠?"

어른들은 투표를 경험으로 하나요?

백과사전에서 어른은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그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나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판단이 결코 어리거나 미성숙하지 않다는 건 제19대 모의 대선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경험이 부족해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정치, 투표를 경험으로 하나요? 만약 투표를 경험으로 한다고 말한다면 우리도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매년 학생회장이나 반장선거에 참여해 무려 24번의 투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만 봐도 경험이 많다고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를 하지는 않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학우들의 불



목포YWCA는 Y-틴 청소년인권 교육을 하고, 청소년인권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했다.

만사항을 개선하고 더 편리한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 출마를 선언합니다. 남은 학생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반장과 회장을 뽑기 위해 투표를 합니다.

현재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본인 의지로 군대도 갈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왜 투표권은 주지 않는 건가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투표권 나이를 낮춘 나라 어디에서도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공약의 대상은 청소년들인데 왜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 않는 건가요?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면서 왜 우리 스스로 미래에 대해 결정할 권리조차 주지 않는 건가요?

우리도 교복을 입은 국민입니다. 5월 22일 전까지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청소년들도 6·13 지방선거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모아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을 밝혔던 청소년들을 기억해주시고, 우리의 이 불빛을 끄지 말아주시길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여행 그린보트에 올라보니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2018 그린보트가 '소중한 지구,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를 주제로 2018년 4월 12일(목)부터 18일(수)까지 6박7일간 코스타크루즈 네오로만티카호(바다위의 이탈리아)에서 열렸다. 1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을 출발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의 가나자와와 후쿠오카에 머물고, 다시 부산에 도착했다. 한국YWCA는 창원YWCA 회장단, 이사와 회원, 연합회 실행위원과 실무자 12명이 참여했다.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위원회 간사

각양각색의 사람들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한국YWCA는 2017년 95주년 기념사업으로 젊은 리더십을 키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YWCA 피스보트' 추진을 선포했다. 100주년이 되는 2022년 '다음 세대 피스메이커(Peace Maker)'와 'YWCA 정신을 지닌 젊은 글로벌 리더십 양성'을 위해 일본 국제NGO가 운영하는 피스보트에 100명의 청년들을 파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재단이 주관하는 2018 그린보트에 사전답사 활동을 위한 연합회 활동가 4명의 탑승이 결정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 환경재단과 일본 NGO 피스보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으로 운영한 피스&그린보트를 이어받은 한국 환경재단의 첫 단독 프로그램이다. 관심 많은 회원YWCA의 탑승도 보태졌다.

그린보트의 일정은 간단했다. 환경재단과 코스타크루저가 주관하는 강연, 연주회와 콘서트, 공연, 댄스 강습,

파티 등 선내에서 열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항지마다 진행되는 투어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매일 밤 숙소로 전달되는 '선내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린보트 참가자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시연할 수 있는 '자주기획' 프로그램도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되었다.

그린보트는 기업 직원연수로 온 단체 참가자, 효도 관광으로 온 가족, 그리고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기대를 품은 개인 참가자들로 북적였다. 강사진들도 과학자부터 방송인, 작가, 청년창업가, 건축가, 환경운동가, 교수 등 다양했다. <휴먼 라이브러리> 코너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기후변화, 사회적기업 등 이야기를 가진 '사람책'들과 짧지만 깊은 만남을 가졌다. 2030세대 소통 프로그램도 열렸는데 학생, 사업가, 환경운동가부터 호기심 수집가, 반려견 사진사, 목수 등 독특한 배경을 지닌 청년들을 만나 네트워크를 쌓고 삶의 경험을 나눴다.

여기 그린보트 정말 맞나요?

소중한 지구,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 이번 그린보트의 슬로건이다. 환경과 관련된 강연과 프로그램이 매일 열렸지만 선내 일상은 '소중한 지구'와 거리가 멀었다. 뷔페식당에서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고, 일회용품을 비롯한 소모품들이 쉽게 낭비되었다.

밤마다 과도한 청소로 풍기는 세정제 냄새가 코를 찢었고, 6박7일 내내 불필요한 불빛으로 번쩍였다. 갑판 위에 올라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자연의 위대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지만 뒤돌아 선내를 보면 그린보트가 뜨지 않는 것이 환경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

환경의식 없이 온 사람들도 많았다. 크루즈 여행을 즐기러 온 참가자들에게 '환경'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 유일 크루즈여행이라고 내걸었지만,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방식이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이었던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였다.

100명의 후원자가 1명의 청년을 보낸다

여러 상념 속에 100주년을 맞이 위한 'YWCA 청년 피스보트' 기획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각종 IT(정보통신) 디바이스 등 문명의 홍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환경'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좋은 경험이 분명하다.


그러나 '환경'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환경과 평화를 깨뜨리는 인간의 일상을 극복하지 못한 그린보트가

'청년 피스메이커 양성'을 위한 사업에 걸맞을지는 의문이 들었다. 크루저 공간이라는 특성도 청년들을 위한 강의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공간규모나 환경이 적절하지 않았다. '환경'과 '교류'를 강조한 그린보트에서 만난 청년들과 이야기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배 안을 전전해야 했다.

그린보트 참가비는 기항지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공식 비용은 1인당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물론 NGO 참가자, 특히 이번 YWCA 사전답사의 경우는 특별 프로그램이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명의 청년'을 보내는 계획에서 예산과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꼭 짚어볼 문제다.

청년을 피스메이커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1주일 코스의 그린보트가 아닌 일본NGO에서 단독 운영하는 친환경 컨셉의 '피스보트'에 태우는 것이 본래 기념사업 취지와 맞을 것이다.

평화를 고민하고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 1명이든 10명이든 소수라도 모이고, 그들을 지원하는 '1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해 1명이라도 피스보트에 제대로 태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그린보트 탑승은 좋은 경험과 새겨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YWCA 100주년과 기념사업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규모나 형식보다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 그 해답을 찾는 'YWCA의 항해'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4월 16일 세월호 5주기 추모기념 낭독콘서트 '네번째 봄 앞에서 우리는'을 열어 희생자들을 기억했다.



YWCA 참가단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자유여행을 선택해 후쿠오카YWCA를 방문했다.



대구YWCA의 시초인 신명YWCA Y-틴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YWCA는 4월 20일(금) 창립 95주년을 맞아 대구YWCA회관 6층 '새하늘과 새땅'에서 기념예배와 홀커밍데이 'D-5YEARS'를 열었다. 대구 여성운동의 역사와 함께해온 대구YWCA는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다짐했다.

Y-틴으로 시작된 대구YWCA

대구YWCA는 조선YWCA연합회(현재 한국YWCA연합회) 창설 1년 뒤인 1923년 4월 21일 김활란, 황에스터에 의해 세워졌다. 임성례 초대회장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대구신명여학교 학생운동과 기독교 신앙운동은 대구YWCA 운동의 시초가 됐다. 1923년 9월 2일 신명 Y-틴이 조직돼 전도부, 문학부, 음악부, 변론부, 체육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1936년 일제강점기 탄압으로 해산을 겪고 단순한 수양단체인 성심회로 바뀐다.

1945년 8·15 해방이 되고, 1948년 3월 8일 안언약 목사와 강정에 선생의 지도 아래 신명YWCA가 다시 발족됐다. “조직은 힘이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신앙과 의지, 실천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Y-틴 클럽을 조직했다. Y-틴은 주말협의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지녀야 할 태도와 방향, 사명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매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소를 사서 근교 농촌에 보내는 ‘소 사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Y-틴 청소년들은 봉사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고 생활운동을 펼쳤다. 영세지역 청소년

학업지원을 위한 야간공부방을 운영했고, 청소년 간담회와 체육대회, 캠프, 상담활동 등도 펼쳤다.

Y-틴으로 시작한 대구YWCA는 달서구청소년쉼터(1990년), 대구시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2016년), 보호아동청소년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2017년) 등 부속시설과 Y-틴, 대학·청년Y으로 이어지며 활발한 청소년,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운동에 앞장서다

초창기 운동 목적은 전도와 선교였다. 한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손에는 빵을 들고 지역 소외계층을 찾아갔다. 한국전쟁 후 오용희 총무를 대구 이군사령부 군인교회에 전도사로 파견하고 기지교회를 지원하는 극빈자 구호사업을 시작했다. 기도회와 포크댄스, 레크리에이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군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쳤다. 1951년 11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교도소 재소자 교화사업도 소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대표적인 선교활동으로 출

발했다. 재소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수감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식사를 대접했다.

일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위한 무료직업안내소를 1984년 개소했고, 1990년대에는 ‘아이들에게 보호 받을 권리를, 엄마들에게 일할 권리를’이란 슬로건으로 대구 성서공단 안에 시범탁아소를 운영했다. 1994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YWCA에 이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소했다. 이렇게 발전해 온 대구YWCA 사업은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대구달서지역자활센터(2000년), YWCA노인복지센터(2007년) 부속시설로 이어졌다.

대구의 현재와 역사를 돌아본다


창립95주년 기념예배는 정영애 증경회장을 비롯해 김완수 이사, 손지수 대학·청년Y 회원, 이향단 북한이탈주민의 촛불점화로 문을 열었다.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회장과 이종임 제2부회장, 유성희 사무총장 그리고 광주YWCA 서옥희 사무총장, 창원YWCA 신옥희 회장, 통영YWCA 제경화 사무총장 등 96명이 참석했다.

유영은 대구YWCA 회장은 “대구YWCA는 시대가 필요로 하고, 지역이 원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면서 95년 동안 누구보다 지역을 살피며 돌보는 대구 주민의 친구이자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날들”이라고 고백했다. 한영수



1951년부터 교도소 재소자 교화사업을 실시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수감자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앞으로도 사회의 아픈 곳, 불편한 곳, 소외된 곳을 찾아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대구YWCA는 창립 95주년 기념사업도 선포했다. 먼저 5년간 대구YWCA 회보에 ‘빛바랜 사진 한 장, 더욱 빛나는 Y역사’라는 제목으로 대구YWCA 역사를 조명하면서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찾는 활동을 벌인다. 이렇게 찾은 분들은 매일신문 기자이자 대구YWCA 민들레·홍보출판위원회 공은혜 위원의 ‘대구YWCA 사람 찾아 이어가기’ 인터뷰로 인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구YWCA와 광주YWCA가 함께하는 동서교류, 동서화합 프로그램인 ‘달빛동행II’도 이어진다. 올해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평화순례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95주년 축하 떡을 나누고, YWCA와 함께한 사람들의 축하 영상이 상영됐다. 참석자들이 각자 꿈꾸는 희망 메시지를 적어 ‘비전트리’에 달았고, 손산문 영천 자천교회 목사의 특별강연 ‘대구YWCA 여성의 역사 발자취’도 진행됐다. 2부 홀커밍데이는 서로의 목에 손수건을 걸어주며 시작되었다. 대구YWCA와 함께한 선배와 후배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눈과 귀가 즐거운 축하 무대도 선보였다. 최종희 월배교회 집사의 인형극, 톱악기 공연과 대구YWCA 실무자 밴드로 구성된 Y·B(YWCA BAND) 공연으로 이날 대구YWCA 95번째 생일이 마무리됐다. 



대구YWCA 회장단, 광주YWCA 사무총장과 창원YWCA 회장, 연합회 회장단이 대구YWCA 95주년 생일을 축하했다.



제6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 CSW)가 '성평등 달성을 위한 기회와 도전, 그리고 지역 여성을 위한 지원책'을 주제로 3월 12일(월)부터 20일(화)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는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김예지 기획국장(서울YWCA)과 이보람 소통국장(안산YWCA), 송소연 청주YWCA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집 회원, 김은영 연합회 간사를 파견했다. 청년들은 다양한 국제회의와 세미나 참가, 한국YWCA 워크숍 주관, 각국 참가자와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YWCA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웠다. 한국YWCA가 주관한 Parallel Event 워크숍과 주제발표를 싣는다.

송소연

청주YWCA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집(일참청)' 회원

우리는 왜 성차별적 미디어를 소비하는가

배우가 예쁘고 잘 생겨서, 내용이 좋아서, 재미있다 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드라마를 시청한다. 한국 드라마 속에 수많은 성차별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소비하며 무뎠다. 이러한 문제점을 깨달은 한국YWCA 제62차 CSW 청년대표단은 NGO와 정부가 주관해 여는 워크숍 Parallel Event에서 성차별적인 한국 미디어의 현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류가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성차별적 요소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의를 주고, 한류 콘텐츠를 바람직하게 소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왜 페미니스트들조차 성차별적 요소가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가'를 물어보는 이번 주제는 청중들에게 던지

는 질문이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었다.

한국 미디어 속에는 성차별적이고 성고정 관념이 담긴 장면과 대사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어린이 프로그램과 뉴스에서도 발견된다. '뽀통령'이라 불릴 만큼 인기 있는 어린이 만화 '뽀로로'의 여성캐릭터 '루피'는 온통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고, 항상 요리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아직 사고가 확립되지 않은 아동들에게 고정된 성 역할 인식을 심어주는 만화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CSW 대표 주제인 '지역 여성'과 관련해서도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지역 여성들은 항상 '배우지 못하고 어리숙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문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장면도 차별에 해당된다.



한국YWCA 청년들이 워크숍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한국YWCA 워크숍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성차별적인 미디어를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비하기도 한다. 나도 나름 미디어에 나타난 성차별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장면이 많아 충격을 받았다. 이후 TV 드라마를 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띄어 편히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발표 주제가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러나 생각 외로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 미디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에 한 참가자는 본인 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만연하다며 공감했고,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해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국 대중문화 예술계 미투운동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우리는 한국 영화계에서 일어난 미투운동에 대해 설명해주기도 했다. 발표가 끝나고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높은 관심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발표를 잘 마친 것 같아 뿌듯했다.

여성의 경험은 공유되어야

이번 CSW 역시 미투운동으로 뜨거웠다. 저널리스트의 미투, 정치인의 미투 등 많은 미투 이야기가 오갔다. 여성 정치인들의 삶을 공유하는 네덜란드 워크숍 'Vio-

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패널 발표 뒤 케냐 여성이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성 정치인인 그는 정치생활을 하며 두 번의 모욕감을 느꼈다고 한다. 한 번은 자신이 선거유세 연설을 하고 있을 때 한 남성이 나타나 감히 여성이 연설을 한다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했다. 첫 번째 모욕감이었다. 너무 두려웠지만 이후 활동할 여성 정치인들을 생각해 버티고 그 남성을 내쫓았다. 다음 날 뉴스에 '어떻게 여성이 남성에게 고함치고 내쫓을 수 있느냐'고 보도되었다. 두 번째 모욕감이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다고 느꼈다. 여성의 정계진출은 어렵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몇몇 여성들이 장관자리에 올라 유리천장이 낮아지는데 기여했다고 말하지만, 극소수일 뿐 성차별이 없어지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유엔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다보니, 우리나라가 손가락만큼 변할 때 어딘가는 손뚱만큼 변하기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가 발달해 세계 소식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실체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다. 성차별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 모두의 경험이 공유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맞물려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



김은주 연합회 평화·통일위원이자 실행위원이 '평화와 평화협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길위의 평화학교'가 올해부터 '길위의 평화포럼'으로 이름을 바꿨다. 평화협정을 주제로 진행되는 2018년 길위의 평화포럼은 다섯 차례 진행되며 마지막 대포럼에서는 지리산을 등반한다. 회원YWCA 참가자, 북한이탈주민, 청년회원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9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첫 포럼이 열렸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인 김은주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자 실행위원의 '평화와 평화협정' 강의를 요약해 실는다.

백보람

한국YWCA연합회 평화·통일위원회 간사

한반도에 부는 평화의 바람

최근까지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군사위협과 상호압박을 지속해왔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11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호 발사를 성공해 우리를 혼란과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점점 강도를 강화해 유엔이 생긴 이래 최고 수위의 제재안을 채택했다. 미국은 코피전략(bloody nose), 참수작전 등의 용어를 써가며 압박과 위협을 지속했다.

그런데 한반도에 갑작스런 변화가 일고 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베를린선언을 통해 평화협정을 언급한 바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간 특사단 교환 등 실질적인 교류와 합의를 시작했고,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까지 추진됐다.

여기서 우리는 분단 70년의 세월을 건너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 평화는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 외에도 다양한 개념을 가진다. 단지 폭력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이 부재하여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상태는 '회복적 평화'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평화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전쟁을 끝내는 종전은 쉽다. 그러나 종전을 넘어서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평화협정은 오랜 시간 이야기돼 왔다.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부터 평화협정을 주장했으며, 남한은 공식적으로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부에서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1991년 최초의 남북기본합의서가 탄생했고 지금까지 여러 합의로 이어졌다. 1953년 발표된 정전협정은 이제 평화협정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후에는 평화체제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10.4선언에서 4자 정상으로 정리된 평화협정 당사자성에 대한 문제제기, 주한미군과 유엔의 입장 차이 등 제약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간 신뢰와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하고 주변국들의 지지도 필수적이다.

우리는 통일의 주체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관점 설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건설적인 평화담론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담론 형성은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로 사람들의 인식과 관념에 영향을 주어 삶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다. 남과 북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그 맥락과 역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필연적이다.



포럼단이 열린 토론을 하고 있다.


포럼단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자"

강의가 끝나고 포럼단은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시야를 넓혔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마련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한 우려 등을 언급했다.

북한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유효하지 않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북한은 매년 약 3%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체제변화도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포럼단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지금 같은 남북평화 시기에 각자 자리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통일 인식을 공유하고, 평화통일 감수성을 지역에서 확대함으로써 통일의 주체로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그를 둘러싼 남남갈등도 피해갈 수 없기에 갈등 해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옹보적 관점이 아닌 회복적 관점에서 가능하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존재하는 옹보적 관점의 안보담론에서 평화협정은 절대 불가능하며 이 관점이 우선시되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는 '회복적 평화' 관점을 지향하며,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남북간 그리고 남남간의 치유와 화해에 초점을 맞춰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담론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선언, 그리고 4월 말 남북정상회담을 볼 때 이제 통일은 시간문제다. 남북이 만나 진지한 대화와 토론에 임하며 서로 교집합을 넓혀가다 보면 통일은 곧 다가올 미래다. 



수도권 최초의 경제교육센터가 문을 연 3월 27일(화) 개소식에서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과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현판식을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람중심의 경제교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역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교육기관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경제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경제교육의 기본방향인 '사람중심의 경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공유와 나눔의 개념을 담고 있는 사회적경제 교육내용을 추가로 확대한다.

지역경제교육센터 출범 당시에는 경제교육 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면서 수도권 지역은 배제되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 취약계층이 경제교육 정보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울, 수도권 지역 경제교육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경제교육 경험이 풍부한 한국YWCA와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를 수도권 경제교육센

터 운영기관으로 선정, 3월 27일 수도권 첫 경제교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상범위가 넓은 만큼 효율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YWCA는 경기지역을,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는 서울지역을 각각 맡고 인천지역은 공동으로 운영한다.

YWCA, 13년의 금융교육 노하우 펼친다

한국YWCA는 그동안 청소년 경제교육 개발과 운영에 힘써왔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YWCA와 협력하여 일반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금융교육을 실시해 지금까지 씽크머니를 거처간 청소년은 50여만 명에 이른다.

매년 5-6회에 걸쳐 강사양성교육을 기획, 제공하여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교육의 성과와 지역조직 기반을 인정받아 올해부터 3년 간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3월 27일(화) 서울 명동 한국YWCA회관에서 열린 개



수도권경제교육센터 개소식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소식에는 첫 수도권 경제교육센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획재정부, 경기도교육청, 광역단위 지역경제교육센터, 한국경제교육단체협의회, 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금융교육학회,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등을 비롯한 경제교육 유관기관 관계자와 연합회, 경기·인천지역 회원YWCA 실무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YWCA는 취약,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경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외계층이 경제자립을 이뤄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경제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경제교육센터를 주관하는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도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교육 개발과 확산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와 YWCA 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정숙 경제교육협의회 회장은 "인구대비 경제활동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으면서 경제교육의 필요성과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경제교육센터가 개소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YWCA가 금융교육 운영 노하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경제교육을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

취약계층 경제자립 돕는다

YWCA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원 보호아동,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돌봄노동 종사자, 성폭력·가정폭력 입소시설 여성, 지적장애인 등 경제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을 찾아 그들에게 맞는 교육내용을 개발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내 소외·취약계층 보호기관의 경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별로 필요한 경제 핵심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한다.

특히 경제적 자립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입소 여성과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보호시설이나 부모로부터 자립해 스스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자립에 필요한 경제지식과 경제활동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에서 부당한 일을 겪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에 처하기도 한다.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교육 외에도 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IT 기기 활용교육, 사회적기업 체험교육,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와 보험, 노동법에 이어 취업 관련한 경제교육, 사회적경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제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경주YWCA '행복한 어르신학교'

경주YWCA는 2003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행복한 어르신학교'를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 아침 9시면 열리는 어르신학교는 웃놀이, 요가, 오늘의 좋은 글 감상, 건강박수, 스트레칭 등으로 시작해 노래교실과 공연,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분기별로 건강, 위생, 환경, 소비자, 안전교육 등과 함께 1년에 두 번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 봄 가을에는 체험학습을 하고 연말에는 노래자랑, 개근상 시상식, 송년회를 연다. 질 높은 삶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정서적 지지도 제공한다. 현재 80여명이 등록해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어르신학교를 소개한다.

봉혜영

경주YWCA 사무총장

내 나이가 어때서

매주 화요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예쁜 소녀들. 난 우리 어르신들을 소녀라고 부르고 싶다. 쌀을 씻고, 그릇을 쟁기고, 수저를 소독하고, 김치를 썰고... 화요일의 아침은 바쁘지만 '예쁘다' '고맙다' '수고한다' 무한사랑으로 답해주는 어르신들 덕분에 행복하다. 까만 비닐 봉지에 부침개를 싸들고 오신 어르신부터 화단에 꽃이 너무 예뻐 같이 보려고 가져왔다는 어르신, 알알이 박혀 터진 석류를 따와서 주시는 어르신까지 화요일 아침은 시끌벅적하다.

소녀들은 경주YWCA 사무실 옆 작은 공간인 행복카페에 모여 즐거운 수다를 시작한다.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일주일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어느새 강당 한편에는 '웃이야!' 고함과 함께 유쾌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온다. '저렇게 좋으실까?' 실무자들은 물으며 웃음 짓는다. 이어 임주옥 행복한 어르신학교 회장의 우렁찬 '차렷! 경례!' 소리가 들리고 요가수업이 시작된다. 몸에 좋은 운동이라면 기를 쓰시고 열심히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제발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복한 어르신학교에 새로 입학하신 분의 이름, 어느 동네에서 오셨다는 소개가 끝나면 어르신들은 몇 학년 몇 반인지를 꼭 물으신다. 7학년 8반이라며 대답하는 어르신께 우리 학생들은 '아직 새댁이네' 하신다. 행복한 어르신학교에는 70대 중후반이 가장 많으시고 80대 초반부터 후반이 대부분이다. 88세 고령의 어르신이 두 분 계시는데 요가도 잘 하시고 체험학습 때도 늘 앞장 서서 걸으신다. 입학 자격은 65세 이상 경주 시민이지만 60대는 한 분도 없다. 어르신들은 '오늘의 좋은 글'을 감상하며 옛날을 회상하신다. 그리곤 눈물지으며 글을 다시 읽어 보신다고 뿔아 달라신다. 건강 박수를 치고, 치매예방 지압도 마치고 앞 어르신 어깨 주무르기, 두드리기, 그리고 겨드랑이 간질이기, 가슴 만지기 스킨십과 함께 어르신들은 자지러지며 서로 부둥켜안으신다. 이 순간만은 나이도 잊고 마냥 소녀처럼 웃으며 서로를 껴안는다. 손으로 하트 그리며 사랑 표현하는 사랑스런 청춘들이다. 위암 수술, 척장암으로 치료 받고 계신 우리 어르신 두 분이 생각난다. 하루 속히 나아서 학교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행복한 어르신학교엔 방학이 없다

혼자 살아서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오는 어르신들이 많다. 경주YWCA가 주는 점심은 꿀맛이라며 밥을 소복이 담아가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짱하다. 경주YWCA 형편이 어려워 좀 더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

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오후 수업에는 노래교실이 열린다. 정식 가수인 노래교실 강사는 어르신들의 스타다. 늘 새로운 의상과 노래로 어르신들을 만난다. 재미있는 입담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게 만든다. 오늘도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가 울려 퍼진다.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작은 것에도 몇 번을 인사하고 감사하는 어르신들이다. 보릿고개 없는 살림에도 부모를 모시고 아들 딸 키우며 산전수전을 겪었고,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본 적 없는 어르신들에겐 배움이 너무 소중하다. 어르신들은 일주일 동안 화요일만 기다린다고 하신다. 행복한 어르신학교의 방학조차 거부하신다. 1년에 휴강은 8월 휴가기간 딱 한번 뿐이다. 행복한 어르신학교와 함께할 수 있음에 마냥 행복한 어르신들이다.

경주YWCA는 어르신학교를 운영하며 큰 감사와 보람이 가득하다. 어르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지하의 작은 공간에서 오늘도 수업을 듣는 우리 어르신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대접하지 못해 죄송할 뿐이다.

2013년부터 해마다 두 차례 무료 영화관람을 허락해 주신 경주 메가박스 관계자분들과 공연과 노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설거지 봉사로 섬기는 여성단체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예쁜 소녀들, 사랑하는 행복한 어르신학교 학생들 파이팅! 



지난해 10월 가제삼꽃축제로 떠난 가을 소풍



어르신들이 요가를 하고 있다.



청년, 청소년의 꿈을 키운다 천안YWCA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천안YWCA는 3월 20일(화) 회관 1층에 천안지역 청년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을 열었다. 회원YWCA에 청년전용 공간이 만들어진 것은 2017년 청주YWCA가 '일하고 참여하는 청년의 집(일참청)'을 연 것에 이어 두 번째다.

강규희
천안YWCA 팀장

청년과 청소년, 모두에게 열린 공간

천안YWCA는 2017년 11월 30일(목)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문화홀에서 '지역사회 청년과 함께하는 드림콘서트'를 열었다. 드림콘서트 주제에 맞게 지역사회 출신 청년 음악가들로 구성된 국악그룹, 어쿠스틱그룹, 팝페라 듀오 등을 섭외해 활기차고 경쾌한 공연을 펼쳤다. 특히 천안시 청소년합창단이 동요 '내 나라 우리땅'으로 피날레를 장식한 마지막 순서는 400여명의 회원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그 감동을 이어 천안YWCA는 드림콘서트로 모금된 후원금 중 1천여만 원을 지역사회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환원하고자 '청년희망세상'을 기획했다. 무한경쟁 시대에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으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쉽과 소통, 지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등을 위한 상담 카페로 쓰던 회관 1층 참세방앗간을 새로 단장

하기로 했다.

운영을 구체화하고자 천안YWCA를 정기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시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에 실업 청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을 연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천안YWCA는 소개 받은 청년, 청소년들을 초청해 1월 23일(화) '청년희망세상 청년·청소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청년, 청소년들의 생활복지와 취업지원을 위한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프로그램을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부탁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청년, 청소년 모두에게 '청년희망세상'을 개방하기로 했다. 경제, 환경, 인권,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의 창의적 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3월 20일(화) 천안YWCA 회원들과 임원, 이사진이 모인 가운데 다목적카페 '청년희망세상' 현판식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청년희망세상'이 청년, 청소년들과 지



3월 22일 '청년희망세상'의 구인·구직행사에서 채용면접을 받고 있는 청년

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YWCA는 청년,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Y-틴 전국협의회와 '청년희망세상' 초청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경제영역으로 '구인·구직행사'를 펼쳤고, 환경을 주제로 '청년 아나바다 운동'을 열었다. 인권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정치 영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바로 알기와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문화 영역으로 결혼문화 인식개선 교육과 '커플매칭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2017년 드림콘서트에서 모금된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천안YWCA는 '청년희망세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천안지역 사회단체 기관장, 기업 대표, 활동가 등을 프로그램별 멘토로 위촉했다. 청년들이 학교 과제나 구직활동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 전자피아노, 각종 도서 등도 구비했다.

미래세대를 응원하는 곳

'청년희망세상'의 첫 프로그램인 '천안YWCA와 함께하는 구인·구직행사'가 3월 22일(목) 열렸다. 청년 구인 수요가 있는 4개 채용관, 핸드드립 체험이 가능한 이벤트관, 취업특강관을 운영해 지역청년 30여명에게 현장면접을 진행하고, 천안YWCA 활동을 알렸다. 실업



'청년희망세상'을 마련하는 씨앗이 된 2017년 11월 30일 드림콘서트 기념사진

청년 5명에게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면접용 정장 구입비를 지원했고, 취약계층 청소년 10명에게는 교복 구입비를 전달했다. 비경제활동으로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청년들에게는 면접용 정장을 구입해 자신감을 높이도록 도왔고, 성장속도가 빠른 청소년들에게 신학기를 맞아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4월 19일(목)부터 4월 21일(토)에는 청년,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아나바다, 프리마켓 매장을 천안YWCA가 진행하는 사랑나눔 바자회와 연계해 '나누는 일, 함께해요' 바자회를 열었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직 쓸 만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싼 값에 팔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YWCA 탈핵생명운동인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참가한 청년,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에 청년, 청소년들의 공간이 마련되었음을 기뻐했고 앞으로도 활발히 이용하고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숙 천안YWCA 회장은 "청년희망세상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에 더 귀기울이고 YWCA가 지역 청년, 청소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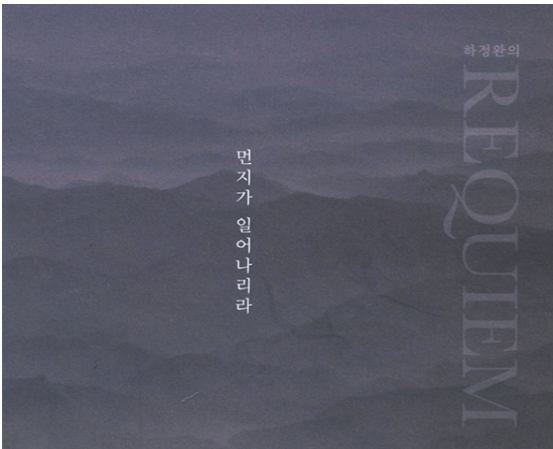
천안YWCA 청년전용 공간 '청년희망세상'이 출발선에 섰다. 지역 청년, 청소년들과 소통, 공감, 응원, 격려하는 것을 넘어 함께 문제를 헤쳐 나가고 YWCA 청년성을 살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억울한 죽음을 위한 기도

하정완의 레퀴엠 ‘먼지가 일어나리라’

이은혜

한국YWCA연합회 홍보출판위원·뉴스앤조이 기자



리가 기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날이 오면’ 먼지처럼 사라진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알려 주고 싶어 ‘먼지가 일어나리라’라고 제목을 붙였다.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듯

제주 출신인 하정완 목사는 서울 성북구 꿈이있는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담임목사다. 그는 교회 설교에서 영화를 접목하고, 콘서트 형식을 병행한 예배로 한국교회 문화목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하정완 목사는 노래와 인연이 깊다. 약 30년 전, 제주에서 노래패 ‘숨비소리’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숨비소리’는 해녀들이 바닷 속에 머물다 나올 때 길게 내쉬는 소리를 의미한다. 그는 <동네북>(한울)이라는 시집을 시작으로 10여 권의 시집을 펴냈고, 개인 사진집 <바람이 다녀가다>를 펴낸 사진가이기도 하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노래를 잠시 멈춘 하 목사는 세상을 위로하고 싶어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 하정완 목사는 이번 앨범에 수록된 8곡 중 7곡을 작사, 작곡했다(한 곡은 익명). 목사로서 이들의 죽음을 기억하며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듯 노래를 쓰고, 노래를 불렀다.

4.3사건과 세월호 참사

가톨릭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드릴 때 연주하는 무겁고 침울한 음악예식 ‘레퀴엠’(진혼곡). 하 목사는 레퀴엠 순서를 따라 ‘먼지가 일어나리라’를 구성했

다. 1번 곡 ‘그 길-Agnus Dei’는 제주 4·3사건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그는 제주의 바다와 오름, 독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했다.

예수 그의 길은 햇살이 비추이고
고운 꽃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무너져 내린 독을 따라 혼자서 가는
고난의 바다가 그 고개 넘어로
아누스 데이 그 길이 모두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이루어라

2번 곡 ‘고개 속인 봄꽃들-Kyrie’는 이 음반의 타이틀 곡이다. 레퀴엠의 ‘자비송’에 해당하는 이 노래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과 고통받는 부모들을 위로하고자 수록한 노래다. 하정완 목사가 직접 불렀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크게 기교를 부리지 않은 그의 목소리가 어우러진다. 하나님이 세월호 희생 가족들의 울음과 고통을 기억하고 위로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다.

키리에 키리에 바람도 목이 쉬고
키리에 키리에 고개 속인 봄꽃들
키리에 키리 어머니 울음소리
키리에 키리 아버지 고통소리
음 위로하소서
음 나의 주여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길

하 목사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리랑고개에서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모티프를 얻었다. 조선시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죽어서 아리랑고개 절벽 너머에 버려졌다. 하 목사는 아리랑고개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던 길, ‘비아 돌로로사’에 비유한다.



하정완 목사는 “수많은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8번 곡 ‘아리랑고개 예수-Libera me’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을 넘어 죽은 뒤 부활함으로써 남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했던 것처럼, 억울한 죽음이 그냥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기타 반주와 함께 인디 가수 고와라, 김진경, Blah Blah의 목소리가 흐른다.

아리랑 고개 너머 당신이 있다기에
아리랑 고개 너머 그리움 있다기에
새벽길 내달려서 고개 저편 너머로
아리랑 열두 고개 한 걸음에 건너가니
흩어진 아픔들이 온 천지에 봄꽃이네
그대 계신 아리랑 고개 나도 넘어리
아리랑 고개 너머 당신이 있다기에
아리랑 고개 너머 그리움 있다기에

하 목사는 “이 땅의 억울한 죽음이 절대로 바람에 흩날려간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외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음반판매 금액은 전액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100장의 수익금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사건의 뜻을 기려 제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된다.

월례아침기도회



월례아침기도회가 4월 2일(월)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평화·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월례아침기도회는 장미란 위원장의 인도로 시작됐다. 평화·통일위원회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특별찬송을 불렀고 박영순 위원이 대표기도를 했다. 박보경 장신대 교수이자 목사가 ‘하나님 선교에 재헌신하다’를 주제로 설교했다.

2018년 장학금 지원

청년과 청소년, 실무자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인 YWCA가 2018년 장학금 지급을 시작했다. 김갑현·이명혜 리더십 장학금은 대구·광주·수원·서울 회원YWCA 실무자 4명에게, 김활란 기념장학금은 서지수 Y-틴 전국협의회장에게, 손메리·손인실 장학금은 손지수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장에게, 고의순 나눔장학금은 김우경·양지혜 남원YWCA Y-틴 회원에게 각각 전달됐으며 YWCA 1922장학금은 Y-틴 전국협의회 임원과 대학·청년Y 전국협의회 운영위원 30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이행자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은 이행자리더십 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기부해 Y-틴 코딩교육비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Y-틴 100여명에게 각각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 실무활동가 교육



2018년 제1차 YWCA 1단계 실무활동가 교육이 3월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YWCA 목적과 정체성을 이해하고, YWCA 운동가로서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는 다양한 강의와 나눔, 활동 시간을 가졌다. 16개 회원YWCA 본부와 부속시설을 비롯해 연합회 실무활동가 등 45명이 참석했다.

YWCA 회장단 연수



2018년 YWCA 회장단 연수가 4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전국은행연합회관과 버들캠핑장에서 열렸다. 회원YWCA 회장단 85명이 참석한 가운데 Y아카데미 위원인 이숙진 이화여대 교수의 ‘한국사회 성평등 변화의 물결과 YWCA 과제’ 특강과 표대중 노무사의 ‘2018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NGO 인사, 노무’ 강의가 진행되었다.

놀수록 놀쑈(North)



대학·청년Y 북부지역협의회 ‘놀수록 놀쑈(North) : 벚꽃놀이’가 4월 7일(토) 남산에서 열렸다. 숨가쁜 일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연을 만끽하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이

번 프로그램에는 서울YWCA, 수원YWCA, 안양YWCA 대학·청년Y 회원 8명이 참가했다. ‘놀수록 놀쑈’는 올해 봄, 가을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10월에는 ‘놀수록 놀쑈-단풍놀이’가 열릴 예정이다.

Y-틴, ‘YWCA 회장상’ 표창



한국YWCA연합회는 매년 청소년 활동에 기여한 회원YWCA 지도자와 Y-틴 회원을 격려하고 청소년운동 활성화를 돕고자 ‘회장상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14개 회원YWCA Y-틴과 대학·청년Y 회원을 비롯한 지도교사, 자원지도자 등 41명이 표창을 받았으며 시상식은 각 회원YWCA에서 열렸다.

‘평화협정’ 주제로 길위의 평화포럼



제1차 길위의 평화포럼이 4월 19일(목)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회원YWCA 회원, 청년회원, 탈북민 포럼단 26명과 연합회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협정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인 김은주 연합회 실행위원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100주년을 향한 한국YWCA 95주년 기념사업인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지리산편

준비를 위한 길위의 평화포럼은 올해 다섯 차례 열린다. 10월에 2박3일간 진행될 마지막 대포럼은 등반 워크숍으로 지리산에서 열린다.

YWCA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1차 워크숍



2018년 YWCA 직업훈련 담당 실무자 1차 워크숍이 4월 3일(화) 연합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원YWCA 직업훈련과 알선담당 실무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이숙진 Y아카데미 위원의 YWCA 성평등 운동, 이은영 돌봄과살림위원장의 돌봄관련 노동시장 흐름, 돌봄과살림위원회 위원인 표대중 공인노무사의 가사서비스공식화 조기정착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과 회원YWCA 현안공유 등으로 진행되었다.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18년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3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1박2일간 서울사이버대학교와 베스트웨스턴아리랑힐 호텔에서 열렸다. 회원YWCA 사무총장 48명이 모인 가운데 국수남 인사랑노무컨설팅 노무사의 특강 ‘NGO활동가의 인사노무리더십 : 채용부터 퇴직까지’를 듣고, YWCA 인사노무에 관해 논의했다. 이어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YWCA 지역의제를 공유하고, 민들레넷 전산시스템 운영을 협의했다.

회원YWCA 협력·지도위원 워크숍



연합회는 4월 9일(월)부터 10일(화)까지 1박2일 동안 회원YWCA 협력·지도위원 워크숍을 열어 지난해 활동을 공유하고, 올해 13개 준회원YWCA 감사와 회원YWCA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회원YWCA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협력관, 지도위원 제도를 운영 중인 연합회는 2017년부터 맞춤형 지원을 위해 5부지역별 협력위원을 두고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열세번째 씽크머니 협약식



올해로 13회를 맞는 YWCA와 한국씨티은행의 청소년 금융교육 '씽크머니' 지원협약이 3월 21일(수)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재단 지원의 후원금 4억여원(미화 37만5000달러)을 YWCA에 전달했다. 이어 진행된 씽크머니 우수상 시상식에서는 우수 협력학교로 소림학교를, 씽크머니를 잘 운영한 우수 YWCA로 군산진할지부와 인천YWCA를, 우수 강사로 청주YWCA 유윤경 강사를 각각 시상했다.

씽크잡스 협약식

YWCA와 한국씨티은행은 4월 12일(목) 연합회 강당에



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씽크잡스' 지원협약식을 진행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8년 씽크잡스 사업을 지원하는 씨티재단 후원금 2억 4천여 만원(미화 21만5천달러)을 YWCA에 전달했다. '청년의 꿈, 기술로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씽크잡스는 만 17세부터 24세까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00명을 선발해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지원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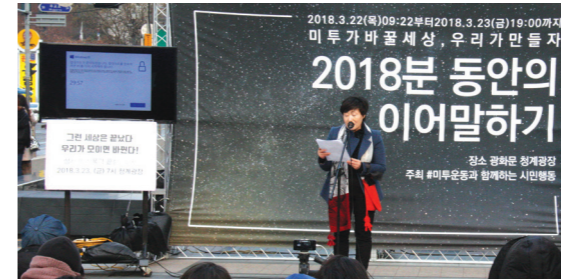
YWCA는 2017년 8월 1차 전달 이후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된 북한어린이돕기 분유 전달이 재개됨에 따라 4월 2일(월) 분유 532통을 중국-북한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앞으로 총 2톤 가량의 분유가 격월마다 전달돼 평안북도 탁아소,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아이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방문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설립 15주년을 맞아 서희전·홍인숙 전 연변특별지원위원회 위원과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 배정미 국장이 3월 24일(토)부터 27일(화)까

지 연변 현지를 방문했다. YWCA 인사들은 15주년 행사 참석과 함께 이사·위원 교육, 프로그램 참관 지도, 협력방안 모색 등을 협의했다. 서희전·홍인숙 전 위원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에 1만달러를 후원했다.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심민회장은 허미란 회장이 선출되었다.

미투시민행동,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YWCA를 비롯한 340여개 여성·노동·시민 단체로 구성된 '#미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3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를 열고 2018분 이어말하기, 대자보광장,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를 진행했다. 3월 22일 오전 9시 22분부터 3월 23일 오후 7시까지 2018분간 진행된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에는 한영수 연합회 회장, 김은경 성평등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YWCA를 비롯한 57개 소비자·학부모·농민·환경단체로 구성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4월 2일(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MO 완전표시제 촉구를 위한 집중행동 기간을 선포하고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GMO 완전표시제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는 4월 9일(월) 기준으로 20만 3천여명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5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핵발전소 수출지원 중단 촉구



YWCA가 소속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 건설완료 기념행사에 참석한 3월 26일(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핵발전소 수출 지원 중단 및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수출 지원까지 나서서 것을 지적하며 각종 의혹과 계약사항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YWCA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운동



YWCA를 포함한 환경·생협단체로 구성된 '일본산식품 수입규제 WTO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3월 19일(월)부터 '방사능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는 30일 집중 시민행동' 활동을 펼쳤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상소준비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고, 4월 20일(금)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서명운동 결과 등을 보고하는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에서 2만 8천명 시민들이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서명에 동참한 가운데 YWCA는 34개 회원YWCA와 연합회가 1만 1,902명의 서명을 받았다.

동정

문경란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사임

정선경·박영순
한국YWCA연합회
전문직 실행위원 선임

부고



김현자 명예연합위원 별세
김현자 연합회 명예연합위원이 4월 18일(수)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28년 전북 김제 출생인 고인은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제11·12대 국회의원, 헌정회 부회장, 전문직여성한국연맹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연합회 대학생부 간사를 거쳐 실행위원과 부회장을 지낸 고인은 1983년 한국 최초로 세계YWCA 실행위원으로 선출돼 한국YWCA 국제활동을 개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밖에도 국제의회연맹 부위원장, 제3차 유엔 세계여성대회 한국수석대표 등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유족으로는 아들 오준호 KAIST 교수, 강호 정우구조엔지니어링 소장, 혜련 각당복지재단 상임이사자가 있다.

시간 안내

사랑하며 춤추라 유성희 외 7명



신앙과지성사 / 1만 7천원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 장기려 박사, 유기농 운동가 원경선, 가나안 농학교 김용기 등 예수의 삶을 살아낸 아홉 어른들의 신앙 이야기가 담겼다. 이들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이들이 필자로 나섰다. 유성희 한국YWCA 연합회 사무총장은 평생을 여성운동과 민주화에 투신한 YWCA 여성운동가인 조아라 광주YWCA 전 회장님의 삶을 조명했다.

유정과 백합의 편지 이봉진



문운당 / 비매품

고의순 전 은학의집 운영위원의 남편 이봉진이 아내와 편지를 담은 <유정과 백합의 편지>를 펴냈다. 아내 '백합'과 약혼 기간에 해외에 떨어져 있을 때, 오고간 서신을 남편 '유정'이 엮었다. 고의순 선생의 결혼관이 담긴 사랑의 편지와 지인에게 온 서신은 우리에게 따뜻한 교훈을 준다. 고의순 선생의 사진도 담았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18. 3. 1~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강승아, 강현중, 박지영, 구정혜, 권순복, 권 진, 김기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미애,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일근,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남희숙,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실, 박임희, 박진화, 박호정,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정미, 백혜진, 서은미, 손서정,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소영, 오시창, 오영란, 오현숙, 원영희, 유도희, 유 빈, 유성희, 유 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찬형, 이찬진, 이행자,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미란, 장선희,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채정희, 천유란, 최수연,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1,785,000
개인 기부	김수진, 손서정, 오경선, 오경혜, 최혜실	209,78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130,000
기관 및 단체	NH농협은행(명동지점), 레오니다스, 르뱅(명동성당지점), 전광수 Coffee House(명동성당지점)	28,670
	합계	2,153,450

YWCA 1922장학금 모금현황

(2018. 3. 1~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후원 명단	김경주, 김상현, 김춘자, 김효숙(천안YWCA), 박기범, 박보경, 박영오, 박은지, 백주선, 이숙현, 이정숙(천안YWCA), 이정화(천안YWCA), 이종석, 이종민, 장 선(천안YWCA), 제혜자(서울YWCA분천복지관), 홍다운, 홍미선, 홍성준, 홍우진	430,000
	합계	430,000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Y회원 Day' 샐러드 소스만들기



매달 셋째 주 금요일마다 회원 특별프로그램을 열고 있는 고양YWCA는 3월 16일(금) 요리강사 손인숙 이사의 봄샐러드 소스 만들기를 진행했다. 전문성을 가진 자원활동가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Y회원 Day'는 회원들의 YWCA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돌보미 통합교육



남양주YWCA는 3월 5일(월)부터 15일(목)까지 산모, 아기, 살림 돌보미 무료 통합교육을 진행했다. 50대 이상 취약계층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집에서 25명의 수강생이 선발되었으며 YWCA 이해와 탈핵, 성평등운동 정책 등을 소개했다.

부천YWCA 김은아 팀장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기총회

부천YWCA가 단체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6차 정기총회가 부천YMCA에서 3월 27일(화) 열렸다. 전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올해 사업 및 예산승인, 임원선출에 이어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특강과 햇빛발전소 제2호기 설치장소 협의 등을 처리했다.



수원YWCA 정혜진 주임

대학·청년Y 청소년위원 간담회



수원YWCA 대학·청년Y는 4월 6일(금) 간담회를 열고 Y-틴 모임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위원과의 대화, Y-틴 지도를 위한 자원순환교육 등을 진행했다. 대학·청년Y는 올해 Y-틴 청소년들과 함께 좋은 세상 만들기를 위해 환경, 성평등, 평화통일 주제를 중심으로 '생활 속 청소년 윈윈(winwin)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자원·실무활동가 워크숍



안산YWCA는 3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태안 천리포수목원 에코힐링센터에서 이사, 실무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군자 기질검사를 통해 서로 성격을 이해하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걷기와 명상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안양YWCA

홍미영 간사

에너지전환정책 제안 토론회



안양YWCA는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과 함께 3월 9일(금) 안양시청 3층에서 '안양시 에너지전환정책 제안토론회'를 진행했다. 2012년 '탈핵·에너지전환도시'를 선언했던 안양시 에너지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역 에너지정책 의제를 짚어보고자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리가 되었다.

의정부YWCA

김흥례 부장

경기북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올해부터 2년간 경기북부 10개 시·군(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고양, 파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의정부YWCA는 3월 15일(목)부터 30일(금)까지 31명 수강생에 대한 1차 교육을 진행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돕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며 고양YWCA와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부

거제YWCA

심은옥 간사

다문화가정 남편교육

거제YWCA 부속기관인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월 28일(수) 남편교육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7개 가정이 참여해 아동, 청소년의



연령별 뇌 발달을 알아보고 감정코칭의 중요성을 배웠다.

김해YWCA

권중숙 팀장

동부지역 회원증모 전략수립 워크숍



김해YWCA는 3월 29일(목) 대구YWCA에서 열린 동부지역 회원증모운동 역량제고와 회원확대를 위한 전략수립 워크숍에 참석해 증모운동 계획을 논의했다. 김영미 회장, 서춘화 부회장과 임원, 사무총장, 부속기관 관장,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대구YWCA

배민희 간사

영성훈련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꿈꾸다'



대구YWCA 이사, 실무자 36명은 3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1박2일간 영천 자천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진행

했다. 100년 전통의 한옥교회 자천교회는 초기 한국교회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교회다. 손산문 목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 신앙인들의 이야기에서 현재를 돌아보고, 대구YWCA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다짐했다.

부산YWCA

김예은 간사

다행복 인문학



부산시 동구 다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으로 '다행복 인문학'이 3월 19일(월)부터 4월 16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부산YWCA 강당에서 열렸다. 좋은 부모의 역할, 아이 성품 세우주기, 자녀 진로지도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부모 10여명이 참여했다. 다행복교육지구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자치구·군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공교육 혁신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협력활동이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의류 대바자회



사천YWCA는 3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2층 강당에서 의류 대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저소득층 여성들의 자립기반 마련 등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양산YWCA

정은정 간사

이사·실무자 워크숍

양산YWCA는 3월 17일(토) 울산YWCA 청소년문화의집



에서 2018년 이사·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정순 울산YWCA 회장의 '지도자 역량강화' 강연에 이어 대왕암공원 일대에서 참석자들이 자연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

울산YWCA

김다혜 간사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



울산YWCA, 울산YMCA,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산지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울산녹색소비자연대로 구성된 울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3월 15일(목) 오전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맞아 롯데백화점 앞에서 소비자권리의 중요성과 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진주YWCA

송광은 간사

부활절 계란 나누기



진주YWCA는 3월 30일(금)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전하기 위한 부활란 나누기를 진행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활동가들, 이사들이 아침부터 모여 부활란을 준비해 지역 사회와 이웃에 전달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다.

진해YWCA 서연우 간사

진해군항제 '탈핵·미투' 캠페인



YWCA는 벚꽃축제에 유명한 진해군항제 기간인 4월 1일(일)부터 10일(화)까지 중원로터리 일대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탈핵운동 등 YWCA 활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 대응' 서명운동과 함께 미투운동,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도 진행됐다.

창원YWCA 김도희 간사

이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창원YWCA는 3월 16(금)부터 17일(토)까지 합천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사·위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회원증도 발대식을 진행했다. 하선규 부산YWCA 명예회장이 'YWCA 활동과 자원지도자의 책무성'을 강의했고, 상임위원회별로 회원증도 계획을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통영YWCA 변은실 간사

후쿠시마 7주기 탈핵캠페인

통영YWCA는 3월 12일(월) 중앙시장 인근에서 본부와 6개 부속기관 활동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후쿠시마 7주기 탈핵캠페인을 펼쳤다. 후쿠시마 핵사고 피해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탈핵의



지를 다짐하고, 재생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포항YWCA 김수영 간사

사랑을 전하는 부활란 나누기



포항YWCA는 3월 21일(수) 부활의 기쁨과 의미를 전하기 위한 '부활란 나누기'를 진행했다. 이사, 위원, 활동가 등 20여명은 포항시와 포항고용센터, 교육청 등 관공서를 비롯해 포스코, 영남에너지서비스 등 기업체, 학교, 언론사 등 110여개 기관을 찾아 부활란을 전달하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다.

북부

강릉YWCA 이신애 부장

'미투운동' 지지 캠페인



강릉YWCA는 3월 13일(화) 강릉역에서 오거리까지 침묵 행진을 하며 미투운동에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고,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성차별·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해YWCA 정상금 간사

이웃과 함께한 부활란 나누기



동해YWCA는 3월 30일(금) 동해YWCA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목호 재래시장 상인들, 한마음병원 환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뜻을 전하기 위해 부활란을 나누어주었다.

서울YWCA 성지희 간사

'미투운동과 언론보도' 시민토론회



서울YWCA는 3월 20일(화)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시민 토론회 '미투운동과 언론보도'를 대강당에서 열었다.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서울YWCA는 '공익'을 지향해야 하는 언론이 성폭력 재발방지에 초점을 둔 보도로 성폭력 근절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속초YWCA 주미란 간사

여성의 날 '미투 캠페인'



속초YWCA는 3월 8일(목)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속초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속초시 여성가족과,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미투운동을 응원하는 뜻으로 시민들에게 하얀 장미를 나

눠주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원주YWCA 진정희 간사

시민들과 함께한 '부활란 나누기'



원주YWCA는 부활절을 맞아 이사, 위원, 활동가들이 3월 29일(목) 원일로 농협 앞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부활란을 시민들에게 나누며 원주YWCA를 홍보했다.

인천YWCA 김현우 간사

산모돌보미 교육



인천YWCA는 3월 15일(목)부터 22일(목)까지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산모돌보미 교육을 진행했다. 산모돌보미 역할, 산후조리 수유마사지, 산후체조, 영양관리, 신생아 건강문제 발견과 대처법, 아이목욕 마사지 등 직무교육을 마친 18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춘천YWCA 경소희 간사

'미투운동' 지지 캠페인



춘천YWCA는 3월 16(금)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사, 활동가를 비롯해 시민들

은 춘천YWCA회관 앞에서 명동까지 침묵행진을 하고, YWCA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서부

광주YWCA

손유영 부장

회원환영회



광주YWCA는 3월 13일(화) 회원 100여명을 초대해 ‘회원환영회’를 열었다. YWCA 활동소개 영상에 이어 성인클럽 ‘아이리스’가 모두복 공연으로 실력을 뽐냈으며 서로 친목하고 화합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에게 YWCA 정체성과 운동을 알려 참여를 높이기 위한 회원환영회는 매년 열리고 있다.

남원YWCA

김미정 간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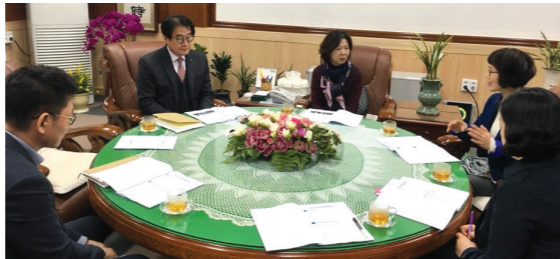
남원YWCA는 4월부터 8월까지 남원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와 함께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첫 번째 일정으로 4월 5일(목) 자녀행동 의미를 이해하고 솔직한 감정표현으로 자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했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과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참여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신안진로체험지원센터 선정

목포YWCA가 신안교육지원청 신안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4년째이다. 신안진로체험지원센터는 신안군 청소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진로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직업체험



교실, 방송미디어 분야 진로·직업 체험의 날, 과학캠프, 진로캠프, 대학탐방 등을 운영하게 된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제주여성멤버십 기본교육



서귀포YWCA는 3월 21일(수) 회관에서 지역 여성리더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제1기 제주여성멤버십 기본교육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들이 제주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여성리더육성 특화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순천YWCA

김정민 부장

합창단 정기연주회



순천YWCA 합창단이 순천YWCA 창립기념일에 맞춰 3월 15일(목)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특히 ‘평등세상’을 주제로 남성단원과 함께하는 혼성합창과 순천생명숲돌봄센터 어린이들 출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두성 마임이스트의 ‘인생’ 연기도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박수를 받았다.

여수YWCA

박선주 간사

활동가 해외연수



여수YWCA는 3월에 본부와 부속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31명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일본 오키나와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했다. 두 개 팀으로 나누어 평화통일에 대한 YWCA 역할을 고민하고, 소통과 친목을 도모했다. 평화기념공원과 사키마미술관을 찾아 전쟁의 상처를 돌아보고 평화를 기원했다.

익산YWCA

장윤미 간사

전북제일고 청소년들과 폭력예방 캠페인 LETS동아리·1학년 3반, 인 가온누리 동아리 공동주관 미투운동 동참 및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익산YWCA와 전북제일고등학교 청소년들(1학년3반, LETS동아리, 인 가온누리 동아리)은 3월 28일(수)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과 아동·청소년 폭력 근절 예방 및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70여명의 참가자들은 전북제일고등학교 정문에서 익산역까지 침묵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민관합동 청소년보호 캠페인

전주YWCA는 3월 12일(월) 신동초등학교 앞에서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덕진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청



소년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호기심으로 인한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이번 캠페인에는 신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뜻을 더했다.

제주YWCA

하지현 간사

고령자인재은행 이음일자리사업



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3월 16일(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이음일자리사업 발대식을 진행했다. 제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신중년층 일자리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이번 사업에는 제주YWCA,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사회복지협의회가 참여한다. 제주YWCA는 오름 19곳 환경보전을 위한 오름매니저(158명) 활동을 주관한다.

중부

논산YWCA

이수정 간사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탈핵연합예배



회원YWCA 소식 4월

논산YWCA는 3월 31일(토) 2층 강당에서 학부모와 청소년, 청소년대학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동아리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운동주제인 '올바른 역사인식'과 관련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지역봉사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대전YWCA

이진주 간사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탈핵연합예배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를 맞아 3월 9일(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연대가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연맹, NCKK,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30Km연대가 주관하는 탈핵연합예배가 대전시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반생명적 핵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세종YWCA

김영옥 간사

이사·직원 연수

8년 세종YWCA 이사·직원 연수



세종YWCA는 3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1박2일 동안 이사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연수를 공주시 정안면에서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이사회와 임원회 운영규정 준칙 재검토를 비롯해 70주년을 맞게 될 세종YWCA 브랜드 전략, 70주년 기념행사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요양기관 종사자 양성과정

제천YWCA 고령자인재은행은 3월 19일(월)부터 3월 30



일(금)까지 요양기관 종사자 양성과정의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수료했지만 자격증 취득에 실패했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격취득이나 취업이 어려운 50세 이상 구직자 20명이 참여했다.

청주YWCA

김광식 간사

Y-틴 인준식



청주YWCA는 3월 31일(토) 청주서남교회 다윗성전에서 2018년 Y-틴 인준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준식에서 카디리 학교, 온새미로 등 9개 동아리가 인준을 받았으며 강혜원 청주Y-틴협의회회장을 비롯해 동아리 임원에게 임명장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충주YWCA

김세희 팀장

다문화가정 나무심기



충주YWCA는 3월 31일(토)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제4회 생명나무 행복공동산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25개 가정이 가족나무를 심고 모국 동료들과 함께 생명나무를 보살핌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를 만들고 모국동료들과 소통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제주 헌책박람회

헌책에 빨대를 꽂아라

기간 | 2018. 5. 25~6.30

장소 | 탐나라공화국(한림읍 한창로 897)

주요행사

- 헌책도서관 개관 5.25(금)
- 탐나라공화국 스토리투어 5.25(금)~6.30(토)
- 한중교류주간 5.25(금)~6.1(금)
- 독서와 창조주간 6.1(금)~6.10(일)
- 역발상창조캠프 장난끼워크숍 6.15(금)~17(일)
- 제주한림의 날
- [제주·서산 송아지 100일잔치] 6.23(토)
- 기타 전시/공연/교육/강좌/체험

주최 | 제주헌책해어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
 JDC
 전국YMCA연맹
 한국YWCA연합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환경운동연합
 주관 | 탐나라상상그룹



- 헌책 5권 이상 지참해야 입장 가능
- 책 기증자에게는 탐나라공화국 여권 발급 (5권 이상 1년/100권 이상 3년 유효)
- 빈손 방문객은 여권수속 후 입장(3년 유효)

5.25 ▶ 6.30 제주 탐나라공화국

JEJU
 SECONDHAND
 BOOK FAIR